

제 4 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공모 당선 작품소개

이글은 당협회가 '88년도 우유 공동홍보의 일환으로 제 4 회 전국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 응모자 5,759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새싹회 아동문학가 윤석중씨를 통해 엄격한 심사결과 최우수상 1편, 우수작 2편,佳作 5편, 입선작 10편, 장려상 30편 등 총 48편이 당선되어 지난해에 최우수작 및 우수작 2편을 게재하였으며 이번 호에는佳作 3편을 소개하고, 잔여佳作 2편과 입선작, 장려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본지에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註)



佳作



우리집은 우유가족

인천 서흥국민학교
6~1 전 은 미

우리집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언니, 동생, 나까지 일곱 식구이다.

동생과 나는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하므로 학교에서 우유를 먹고 집안 어른들은 배달하는 우유를

드신다. 학교에서 우유를 마실 때는 자꾸만 웃음이 나온다. 벌써 5년 전의 일이구나!

학교에 들어간 나는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해서 우유를 먹게 되었다. 언니도 다음 달부터 먹게 되었고, 집으로도 배달하여 우유를 먹게 되었다.

‘아니, 우리 어머니께서 웬일로 후한 인심 쓰시지?’

모두가 놀랄 정도였다. 그런데 날벼락 같은 복종하기 싫은 호랑이 명령이 떨어졌다. 할아버지께서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모유 먹고 밥 잘 먹으면 되지 무슨 우유야!”

우리에게 엄하시던 아버지도 할아버지 말씀에는 아무 말 안하셨다.

“아버님, 그렇지만…….”

“할아버지!”

우리는 순간 할아버지 말씀이 거짓이었으면 했다.

우리는 다음부터는 우유 급식을 안하게 되었다. 우유 마시는 아이들의 입만 보고 있으려니 정말 울고 싶었다.

다음 우유 급식비를 내는 마감일이었다. 잠에서 깨어도 일어나기 싫었고, 우유 급식하는 학교도 미웠다. 공부하다 좀 피곤할 때, 간식이 생각날 때, 참 좋은 친구였는데…….

“은미야, 안 일어나니?”

어머니께서 문을 두드리시며 나를 깨우셨다.

“예, 일어났어요.”

세수할 때에도 웃지 않았고, 식사 할 때에는 언니의 주의를 받았다.

“은미야.”

“예, 할아버지.”

“자, 여기 있다. 우유 신청해라.”

할아버지의 뜻밖의 말씀이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급식비만 받아들였다.

“할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니 부엌일 하시던 어머니께서는 놀라기만 하시고 할아버지는 밝게 웃어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변하셨을까?’

등교길에도 공부시간에도 하교길에도 궁금중에 쌓였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침과는 달리 궁금중에 쌓여 우울한 목소리로 인사하자 어머니께서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하고 물으셨다.

“아니어요.”

셋고 나서 책상 앞에 앉으니, 내 일기장이 펼쳐 있는 위치가 달랐다. 누가 볼까 봐 꼭 참고서 옆에 두어 잘 안 보이게 했는데 공책 옆에 있었다.

‘아 참, 어제 일기 쓰고 나서 책상 위에 그냥 놓았지.’

일기장을 펴 보았다. 우유에 대해서 쓴 일기 밑에,

‘일기를 읽어 미안하구나. 이제 할아버지도 알게 되었구나. 그토록 고마운 우유를 못 먹게 해서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께서 일기를 읽으셨다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쓴 대목도 있는데…….

다시 우리집의 냉장고에 우유가 찾아들게 되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우유를 드시게 되었다.

지금도 우리는 우유에 고마와 하며 먹고 있다. 하얗고 맛도 없다며 꺼려하는 친구에게는 고마운 우유 이야기를 해 주기도 했다. 달콤하지 않은 우유지만 우리를 건강하게 해 준다. 다른 음식에서도 영양을 얻지만 적은 양으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양을 주는 우유가 나는 참 고맙다.

선진국에선 적극적으로 우유 급식을 하여 국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한다고 한다. 나는 선진국의 국민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달콤하지 않은 우유지만 작게는 나를 위해서 크게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본으로 마시겠다.



고마운 우유

충북 음성 대소국민학교
4~2반 유영호

할머니가 우리집으로 오신 날은 내가 2학년때의 겨울 방학이었다. 목화송이 같이 하얀 눈꽃이 하늘 가득히 쏟아지던 토요일 오후라, 아이들 모두 우리집 앞의 공터로 몰려 나와 눈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눈싸움을 하기도 하며 온동네가 시끌벅적 떠나갈듯 요란했다.

나도 뛰어나가서 아이들과 같이 눈을 맞으며 신나게 놀고 싶었는데, 엄마의 무서운 눈초리가 생각나서 창문만 뚫어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때 구세주처럼 할머니가 오셨다.

할머니께서는, 내가 썰매 타러 다니다가 폐렴에 걸려 일주일 동안 병원에 다니며 고생한 일을 모르시기 때문에, 나가 놀고 오겠다는 내 부탁을 신포트 들어주셨다.

그날 저녁,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밤새도록 기침을 해서, 나도 지쳤고 간호하시던 엄마와 할머니께서도 피곤해하셨다.

의사 선생님의 지시대로 이틀이나 학교에도 못하고 기관지염과 폐렴 치료를 받았다.

‘나는 왜 허약체질이 되어 운동도 잘 못하고 걸핏하면 기관지염을 앓게되고 결석도 자주 해야 하나?’

생각할수록 속상하고 안타깝기만 했다.

병원에 다니는 일을 이제 끝내야 되겠다고 어머니가 그러셨고, 의사 선생님도 권하셔서 집에서 하루에 우유를 두 봉씩 먹기로 했는데, 우유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도 싫고 더러운 소 생각이 나서 우유 먹는 것이 속제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어떤 날은 반쯤 남은 우유를 바둑이에게 주다 어머니께 들켜 꿀밤을 맞은 때도 있고, 화분에 살

짝 쏟아 버리다가 종아리를 맞은 때도 있었다.

할머니께서도 비위가 약해서 우유를 못 잡수시는데, 어린이와 노인은 꼭 우유를 먹어야 한다고 어머니가 그러셨지만 나처럼 우유먹는 시간을 제일 싫어하셨다.

나는 할머니와 의논해서, 할머니와 내 우유를 어머니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는데, 하루는 쓰레기 치우는 아저씨가 오시지 않아 그만 들통이 났다.

그다음부터, 우유는 어머니가 보시는 앞에서 끝까지 다 먹어야하는 중벌이 내려졌기 때문에 코를 쥐어 잡고 억지로 간신히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리비전에 육상경기의 3관왕이 된 ‘임춘애’선수의 모습이 나왔다. 눈만 커다랗고 몸은 나처럼 훌쩍하니 말랐는데, 달리기 연습할 때 우유를 실컷 먹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했다.

그 뉴스를 들으니 부끄럽고 창피했다. 우유가 그렇게 먹고 싶어도 가난해서 먹지 못하고, 쓰러지면서도 피나는 훈련을 계속해서 금메달을 세개나 따낸 임선수에 비교하면, 우유가 먹기 싫어 쏟아버린 나는 너무 바보같은 아이였다.

그날부터 우유를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정성껏 먹었다. 할머니가 못 다 잡수신 우유까지 한 방울도 버리지 않고 모두 마셨다.

신기하게도 3학년, 4학년 때는 몸이 아파서 결석한 날이 한번도 없었다. 내 친구들도 희한한 일이라고 나를 만져보기도 했다.

체육시간에도 그늘에 앉아 친구들과 운동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땀들도 하고 철봉도 넘을 수 있으며 즐넘기도 다른 아이들처럼 1분

이상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지난 달부터는 우리 반 축구 선수로 뽑혀 매일 한 시간씩 남아서 땀 흘리며 연습하는데도 힘들거나 쓰러진 적이 한번도 없어서, 내가 생각해도 용하고 신이 나서 휘파람이 저절로 난다.

1반하고 시합할 때도 내가 한 골을 넣어 우리 반이 이겼고, 지난 토요일 향우반 별로 축구 시합할 때도 5, 6학년 형들을 제치고 내가 골을 넣어 이겼을때, 선생님께서 나를 업어주셔서 기분이 좋아 하늘을 날아가는 듯 했다.

이 모두가 우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우유를 먹기 시작한지 2년만에 튼튼하고 건강한 축구선수가 되었으니 꿈만 같다. 요즈음도 하루 두 봉씩 꾸준히 우유를 먹고 있는데, 공부하기도 즐겁고 운동하기도 신이 나며 우유 먹는 일은 더 기분좋다.

할머니께서도 억지로 우유를 잡수신 덕택에 팔순이 된 나이에, 바느질도 하시고 밭일도 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유행가를 부르신다. 내 생활을 즐겁고 신나게 변화시킨 고마운 우유, 이 우유 봉지에 뽀뽀해 주며, 이제는 고소하게 느껴지는 우유를 꿀떡꿀떡 힘차게 마신다.

기자



우리집은 우유가족

안성 양진국민학교
3~1 홍 정 자

우리 집은 젓소를 기른다. 그런데 그중 몸이 가장 큰 젓소는 열두 살을 먹었다. 그 소는 새끼를 열 마리나 낳았다. 그래서 젓이 그 소의 무릎까지 닿는데 우유가 젓 짜는 기계로 짜면 우유통으로 하나 가득이다.

우리는 우유 짜는 기계도 있고, 우유통도 있다. 다 짰 다음에는 끝젓을 짠다. 끝젓이라는 것은 우유를 기계로 짰다음, 소독약을 뿌리기 전에 젓꼭지에 남은 젓을 짜는 것이다. 그리고 소도 약을 뿌리는 것이다.

나는 학교에서 우유가 먹고 싶지만 집에서 맨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먹지 않는다.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아파서, 끓여서 먹어야 된다. 우리 아빠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짜신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젓이 제일 큰 소는 느릿느릿 젓을 철병철병 흔들며 가면서 맨날

꿀지로 들어온다.

며칠 전에는 밤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일곱살된 젓소가 밖에서 난 새끼를 아침에 보니까, 새끼가 서서 뛰어 놀고 있었다. 우리 식구들은 모두 웃었다.

새끼는 “음매, 음매, 음매”하고 울었다. 참 귀여웠다.

그런데 아빠가 이상하다고 하셨다. 어떻게 혼자서 나왔느냐고 의아해하셨다. 젓소는 뒷다리가 나오면 머리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뒷다리를 잡아당겨야 하는데, 혼자 나와서 아빠가 젓소를 보고 신통하다고 그러셨다.

내가 이렇게 튼튼한 것도 우리 젓소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튼튼한 것도 젓소 때문이다.

그리고 우유를 다 짰 다음에는 우유 탱크에 저장하기 때문에 언제나 싱그러운 우유를 먹을 수 있다. 나는 우리 젓소가 고마웠다.